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島方言의 疑問法 研究

指導教授 金 洪 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美 京

1987年度

濟州島方言의 疑問法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美 京

指導教授 金 洪 植

1987年 月 日

金美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1987 年 月 日

目 次

I. 序 論	1
II. ㄹ라體 疑問法	4
1. ‘-냐’系 疑問語尾	4
1) ‘-냐’ 疑問語尾	4
2) ‘-니’ 疑問語尾	8
3) ‘-나’ 疑問語尾	9
4) ‘-네’ 疑問語尾	11
2. ‘-다’系 疑問語尾	12
1) ‘-다’ 疑問語尾	13
2) ‘-디’ 疑問語尾	15
3. ‘-가’系 疑問語尾	15
1) ‘-가, -고’ 疑問語尾	16
2) ‘-카, -코’ 疑問語尾	18
4. ‘-는가’系 疑問語尾: ‘-는가, -고’ 疑問語尾	20
5. ‘-레 / -라’ 疑問語尾	22
6. ‘-지’ 疑問語尾	23
III. ㄹ여體 疑問法	25
1. ‘-르로고’ 疑問語尾	25
2. ‘-라’ 疑問語尾	26
3. ‘-멘’ 疑問語尾	27
4. ‘-서’ 疑問語尾	27
5. ‘-안 / 언’ 疑問語尾	28
IV. ㅎ서體 疑問法	30
1. ‘-과 / 과, -강 / 가, -까’ 疑問語尾	30
V. 結 論	32
○ 參 考 文 獻	34
○ Abstract	36

I. 序 論

疑問法이란 叙法(mood)의 일종으로 文의 내용에 대한 疑問과 이 疑問에 대한 回答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心的 態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그러나, 실현되는 장면 내지 상황에 따라서 疑問이 약화되어 命令에 가깝거나 화자 자신의 疑心이나 感嘆을 나타내는 것이 있으나, 이런 것들도 그 형식이 가리키는 바 主된 意義가 疑問에 있는 이상 疑問法의 범주의 것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國語의 疑問 표시모는

- 1) 疑問代名詞나 疑問副詞를 文中에 가지는 형식
- 2) 특정된 疑問 표시의 添辭나 語尾를 文尾에 두는 형식
- 3) 文尾의 抑揚을 높이는 형식

등이 있다.²⁾

그 중 1), 3)의 疑問과 抑揚은 說明疑問: 判定疑問 體系의 분간에만 작용하는 데 反하여 2)의 疑問法 語尾는 그 형식의 다양한 交替에 의하여 복잡한 疑問法 體系를 이룬다.³⁾

이 疑問法은 國語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온 叙法의 하나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15세기와 16세기에 이르는 文獻語를 중심으로 한 상세한 연구⁴⁾를 비롯, 近代 國語의 疑問法,⁵⁾ 現代 標準語⁶⁾와 方言⁷⁾의 疑問法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

-
- 1) Jespersen, O. (1925), 「The Philosophy of Grammar」, pp.313.
 - 2) 千時權(1975), “慶北方言의 疑問添辭에 대하여”, 「國語教育研究」 7, pp.22.
 - 3) 洪宗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碩士論文. pp.5.
 - 4) 羅珍錫(1958), “의문형어미고”, 「한글」 123, pp.7~37.
李承旭(1963), “疑問添辭攷”, 「국어국문학」 26, pp.186~200.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 6, pp.59~82.
 - 5) 李承旭(1971), “18世紀 國語의 形態論的 特徵”,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 6) 張爽鎮(1975), “Pragmatic aspects of questions and answers”, 「語學研究」 11-2.
김하수(1979), “‘-르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말」 4집 (연세대)
 - 7) 千時權(1975), “慶北方言의 疑問添辭에 대하여”, 「國語教育研究」 7.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 研究”, 學術院 論文集 15.
姜信沆(1978), “安東方言의 敘述法과 疑問法”, 「언어학」 3호.
徐賴稷(1979), “慶南方言의 疑問法에 대하여”, 「언어」 4-2
黃炳淳(1980), “의문문의 특수성에 대하여”, 「嶺南語文學」 7.

中世語의 疑問法 연구에 있어 형태적 차이로 인한 說明疑問과 判定疑問의 對立⁸⁾과 直接疑問과 間接疑問의 對立關係⁹⁾는 特記할 만한 연구 결과이다.

說明疑問과 判定疑問은 疑問詞의 유무에 의해 구별되는 것으로 前者를 x-question, wh-question, 後者는 특정의 主語가 특정의 敘述語와 연결되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해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yes-no question, nexus question이라 한다.

直接疑問은 화자와 청자와의 直接的 관계에서 나타나는 直接語法의 疑問을 뜻하는데, 話者는 항상 청자에게 해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달리 質問이라고도 하며 尊卑法이 표시된다. 間接疑問은 청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화자가 그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間接語法의 疑問으로 疑心(suspicion)이라고도 할 수 있고 尊卑法上 中立的이다.¹⁰⁾ 直接疑問은 화자:청자의 관계에서 발화되며, 間接疑問은 화자의 內的인 抽象, 疑心 혹은 同意의 요구 등 소극적인 疑問 형식으로 疑問의 主體와 文中의 主體가 任意的이라 할 수 있다.¹¹⁾

화자가 실제의 대화에서 청자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 받는 상황은 청자가 반드시 대화에 참여하므로 화자와의 社會的 地位에 따라 叙法의 한 범주인 尊卑法이 표시되게 마련이다. 國語의 疑問法은 文尾 곧 終結法에 의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므로 尊卑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화자와 相對者와의 尊卑上 제약으로 말미암은 尊卑法은 終結法에서 體系的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疑問法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結合되어 있다.¹²⁾

本稿는 尊卑法과의 關係하에 실현되는 疑問法 語尾들에 대한 形態-統辭論의 특징을 濟州地域 方言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濟州島는 희귀하고 독특한 言語現象들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方言 地域과는 특이한 方言圈을 형성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 중 濟州島方言(以下 '方言'이라 함)의 疑問法 體系는 中世語의 그것과 유사점이 많아 中世語의 疑問法을 體系化하는 데도 示唆하는 바가 크리라 본다.

疑問法이 실현됨에 있어서는 尊卑法이 표시되게 마련이라는 점에 비추어 方言의 疑問法을 三體系에 의거, 記述하고자 한다. 現代 國語의 疑問法은 학자들에 따라 三分法, 四分法, 五分法 등으로 분류되나 方言에서는 三分法¹³⁾으로 설명함이 일반적이어서 'ᄃ라體[-尊待, +下待, +親密(-格式)], ᄃ여體[-尊待, -下待, +親密(-格式)], ᄃ서體[+尊待, -下待, -親密(+格式)]로 나누는데, 이때 ᄃ여體에 '마씀'이 덧붙으면 ᄃ서體가 되기도 한다.

8)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 6, pp. 59~82.

9) 李承旭(1963), "疑問添辭攷", 「국어국문학」 26, pp. 444.

10) 李賢熙(1982),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國語研究」 52.

11) 李承旭(1963), "疑問添辭攷", 「국어국문학」 26, pp. 190~191.

12)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 6, pp. 60.

13) 玄平孝(1977),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 제74호, pp. 16~17.

洪宗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碩士論文, pp. 8.

本稿의 고찰에 있어서는 주로 각 語尾들이 실제의 발화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고 그 제약의 이유는 어떤 體系的 요인에 기인하는지 抑陽, 質問의 焦點, 前提된 내용을 고려하는데 착안하였으며, 그 다양한 疑問法의 형태들이 경우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그대로 記述하고자 한다.

方言의 발화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篇「韓國口碑文學大系」9-1(1980), 玄容駿「濟州島巫俗資料事典」(1980),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1965) 등의 文獻을 참고하였고, 주로 濟州島地域 사람들의 실제 發話¹⁴⁾에서 추출하였다.

14) 특히 筆者가 전에 재직하였던 서귀포시 소재 서귀여고 학생들의 提報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Ⅱ. ㅎ라體 疑問法

1. ‘-냐’系 疑問語尾

No	先行形態의 構成	疑問法語尾
1	體言 -(이)	냐/니
2	體言 -이-라	
3	用言 -(으)ㄴ-이	
4	用言 -(으)	
5	用言 -노	
6	用言 -아/어	
7	用言 -암/엄	
8	用言 -암시/엄시	
9	用言 -아시/어시	
10	用言 -암시/엄시 -어	
11	用言 -아시/어시 -어	
12	用言 -ㄴ -거	
13	用言 -ㄴ -거(아니)	
14	用言 -ㄴ -말 -이	
15	用言 -크/켜	
16	用言 -어 -지 -크/켜 -라	

1) ‘-냐’ 疑問語尾

- (1) 이디가 가의네 집이나?(여기가 그 애 집이나?)
응, 기라. (응, 그래)
- (2) ㄹ사 온 아이 느네 친구라냐?(아까 온 아이 네 친구더냐?)
예, 순이마쑈게. (예, 순이에요)
- (3) 친구네 집 감이나? (친구 집에 가니?)
예, 그디 강 공부허당 오쿠다. (예, 거기 가서 공부하다가 오겠습니다)

(1)에 있어서 主語가 청자나 제삼자일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나 主語가 화자 자신일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나 발화에 대한 불만이나 반어적인 표현이 된다. (2)처럼 回想法 형태소 ‘-라’가 오면 主語가 누구든 두루 호응이 되며, (3)에서는 主語가 청자일 때만 자연스러운 데 이는 ‘-냐’가 用言形과의 호응이 일반적이라는 데 기인한 것이라 본다.

- (4) 정지에 놔뵈 이시냐? (부엌에 무우 있니?)
예, 하나 잇수다. (예, 하나 있습니다.)
- (5) 느네집 이디서 머느냐? (너의 집 여기서 머니?)
예, 막 머우다. (예, 매우 멀니다.)
- (6) 가의 밥은 잘 먹어냐? (그 애 밥은 잘 먹더냐?)
예, 하영 먹언게마썸. (예, 많이 먹데요.)
- (7) 야의도 학교에 텅점냐? (이 애도 학교에 다니느냐?)
예, 텅점수다. (예, 다닙니다.)

(4)의 경우처럼 用言語幹이 직접 올 수 있는 것은 ‘이시다’와 ‘-허다’ 또는 형용사일 때이며 主語는 화자 자신, 청자, 제삼자에 상관없이 호응이 된다. (5)에서처럼 主語가 제삼자일 때는 자연스럽게 호응이 되고 청자(=주어)이면 ‘-지’가¹⁵⁾ 前接되어서 호응이 가능하며, 화자일 때는 청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발화의 내용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한다. (6)의 경우 화자나 제삼자가 主語이거나, 청자가 主語일 때도 ‘-지’가 前接되면 호응이 된다. (7)과 같이 ‘-냐’ 語尾에 未完了相 ‘-암/엄’이 연결되면 主語가 청자나 제삼자일 때 자연스럽게 발화가 된다.

- (8) 지네단 잘 놀암시냐? (자기들만 잘 놀고 있니?)
예, 재미지게 놀암수다. (예,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 (9) 가의네 밥 먹어시냐? (그 애들 밥 먹었니?)
예, 인칙에 먹엇수다. (예, 일찍 먹었습니다.)
- (10) 느 워 보난 나 줌잠서냐? (너 와서 보니 나 잠자고 있더냐?)
기여, 잘도 잠서라. (그래, 잘도 자고 있더라.)
- (11) 그디 사람 뷁 차서냐? (거기 사람 뷁 찾더냐?)
아니여, 두 사람벳기 엇어라. (아니, 두 사람밖에 없더라.)

(8)은 主語가 화자, 청자, 제삼자이든 상관없이 호응된다.¹⁶⁾ (9)에서는 主語가 청자나 제삼자일 때는 호응이 잘 되나, 화자일 경우는 일반문과는 다른 뉘앙스를 지녀 부정을 전제한 발화이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발화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는데, 이 때 ‘-냐’ 語尾에 前接

15) 이 때, ‘-지’의 의미는 ‘...수 있다’이다.

16) 화자는 1인칭, 청자는 2인칭, 제삼자는 흔히 3인칭이라 칭하기도 한다.

된 ‘-아시’는 完了存續相의 형태이다. (10)과 (11)의 경우에는 主語가 화자나 제삼자이면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청자일 때도 ‘-지’를 前接시키면 호응이 가능하다.

- (12) 이것도 누가 만든거냐? (이것도 내가 만든 거니?)
 어. 나 그런 거 잘 만들래. (그래, 나 그런 것 잘 만든다.)
 (13) 야. 이 수박 먹어도 될거냐? (애, 이 수박 먹어도 될 거니?)
 응. 먹으라. 그거 느 나시로 봐둔 거라. (그래, 먹어라. 그것은 네 몫으로 봐둔 것이다.)
 (14) 나가 그디까지 잘 말이나? (내가 거기까지 간단 말이나?)
 가게 되든 가알거 아니? (가게 되면 가야 될 게 아니겠니?)
 (15) 오늘 비 안 오크냐? (오늘 비 안 오겠니?)
 이제 올거여게. (이제 올 거야.)
 (16) 느 그 문제 풀어지크라냐? (너 그 문제 풀 수 있겠더냐?)
 몰라, 안 풀어봐서. (몰라, 안 풀어봤어.)

(12)는 主語가 누구든 상관없이 호응하며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물음이나 다소 ‘놀람’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발화이다. (13) 역시 主語의 제약 없이 연결되어 未來의 일을 묻는 발화로 경상도 方言(‘-나’)과 같이 未來를 나타낼 때는 名詞化 과정을 거친 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¹⁷⁾

(14)의 경우 主語가 화자일 때는 부정을 전제로 한 발화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主語가 청자이면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라’의 뜻을, 제삼자이면 ‘……할 필요가 없다, 내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5)는 主語가 제삼자인 경우 ‘-냐’ 語尾에 推測의 형태소가 前接되어 상대방에게 제삼자의 일을 推定하여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발화이다. (16)은 (15)의 형태에 다시 回想法 형태소 ‘-라’가 介在된 것으로 主語가 누구든 상관없이 호응이 된다.

지금까지 보아 온 발화에 나타나는 ‘-냐’는 기본적으로 특정의 主語가 특정의 敘述語에 연결되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해답해 주기를 원하는 判定疑問(nexus question)의 구실을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냐’ 疑問語尾는 主語가 화자, 청자, 제삼자의 경우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이 쓰이며 時相과의 호응에 있어서는 주로 過去와 現在와 연결된다. 未來의 일을 묻는 발화는 名詞化의 과정을 거친 후 연결이 가능하다.

이 ‘-냐’ 疑問語尾의 형태는 현대 표준어에서도 쓰인다. ‘-냐’ 語尾의 前身은 ‘-너’로서 15세기부터 줄곧 쓰이던 ‘-너’가 16세기의 문헌 <번역소학> 등에 ‘-냐’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너’나’로의 변화는 16세기 1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원인은 글월 終結語의 일 반적인 母音 [a](-다, -라, -가)에의 統一化 경향에 있다¹⁸⁾고 했다.

17)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研究”, 學術院 論文集15. pp.153.

18)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6. pp.59~82.

다음은 ‘-냐’ 語尾가 抑揚을 달리함에 따라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의 기능을 모두 충실히 해내는 경우의 발화를 보기로 한다.

- (17) 배겼니 누게 와서냐? (밖에 누구 왔니?)
 i) 어수다, 브름 소리우다. (아닙니다, 바람 소리입니다.)
 ii) 읍 집 한방 놀러 왔수다. (옆 집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18) 삼촌 어느제 오케 허여냐? (삼촌께서 언제 오겠다고 하더냐?)
 i) 아니우다, 붓 올거우다. (아닙니다, 못 올 겁니다.)
 ii) 글피썸 외 보켄마썸. (글피썸 외 보겠다고 합니다.)
 (19) 가의 어니 아파서냐? (그 애 어디 아팠더냐?)
 i) 아니, 편적해선게. (아니, 멀쩡했더라.)
 ii) 머리 아프켄게. (머리 아프다더라.)

(17)에서 i)은 밖에서 나는 소리에 의심쩍은 화자가 누군가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의심을 품고 일반적인 判定疑問처럼 ‘-냐’의 抑揚을 올려서 묻은 데 대한 응답이다. ‘누게’에 焦點을 두면서 語尾 ‘-냐’의 抑揚이 처지면 온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說明疑問의 기능을 하게 되어 ii)의 대답이 유도된다.

(18)의 경우 ‘-냐’의 抑揚을 올려 발화하면 언제든지간에 오겠다고 했는지 아닌지를 묻는 判定疑問으로 i)과 같이 청자는 대답하게 된다. ‘어느제’에 焦點을 두어 물으면 삼촌이 오겠다고는 했는데 그제 언제인지를 묻는 발화가 되어 그에 대한 청자의 응답은 ii)와 같은 형식이 된다.

(19)의 i)은 제삼자인 ‘가의’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화자가 그 애가 어디든지간에 아픈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判定疑問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에 焦點을 두어 발화하면 아픈 것을 전제로 하고 그제 어디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이 되어 ii)처럼 청자는 대답한다.

- (20) 1네 어멍 무시거 험시냐? (너의 어머니 뭐 하고 있니?)
 i) 어수다, 놀암수다. (아닙니다, 놀고 있습니다.)
 ii) 우잉쑤터 검질 맬수다. (텃밭에 김을 매고 있습니다.)
 (21) 이썸 어멍 살아점시냐? (이썸 어떻게 살고 있니?)
 i) 예, 살 살암수다. (예, 살 살고 있습니다.)
 ii) 나사 그러저리업쑤. 뭐. (나야 그러저럭 살고 있지요, 뭐)
 (22) 자원 무사 에들아시냐? (저 애는 왜 섭섭해 하고 있니?)
 i) 아니우다, 어멍 안 헤수다.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안 했습니다.)
 ii) 어제 일로 에들앙그네 정 험시네. (어제 일로 섭섭해서 저렇게 하고 있네.)

(20)에서 ‘-냐’의 끝에 抑揚을 올려서 발화하면 무엇이든지간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제 옳은지 그른지를 判定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i)과 같은 응답문을 유도한다. ‘무시거’

에 焦點을 두어 발화하면 主語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게 무엇인지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說明疑問이 되어 Ⅱ)와 같은 응답문이 유도된다.

(21)에서 用言에 焦點을 두어 上昇調가 되면 어떻게든간에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자 Ⅰ)처럼 判定을 내렸고, ‘어떻’에 焦點이 주어지면 요즘 근황이 어떤지를 묻는 것으로 그 응답은 Ⅱ)로 나타난다.

(22)는 끝의 抑揚을 올려 물으면 무슨 이유에서든간에 토라졌는지 아닌지를 묻는 判定疑問이 되어 Ⅰ)의 대답이 유도된다. 主語가 토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의심스런 화자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무사’에 焦點을 두고 발화하면 說明疑問이 되어 Ⅱ)와 같이 청자는 답한다.

이처럼 文中에 의문사를 배치시키고 疑問形 語尾 ‘-냐’가 오는 경우 의문사는 平調를 띠고 끝 抑揚이 올라가면 主語에 대한 敘述語의 연결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해답해 주기를 원하는 判定疑問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때의 疑問詞는 敘述法에 사용된 疑問詞와 같은 기능의 것으로 疑問詞의 기능을 잃은, 名詞로서의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다.¹⁹⁾ 疑問詞에 焦點을 두고 ‘-냐’의 끝 抑揚이 처지면 疑問詞에 대한 說明을 요구하는 說明疑問이 된다.

2) ‘-냐’ 疑問語尾

- (1) 저더 오는 사름 누게니(냐)? (저기 오는 사람 누구니?)
나도 잘 모르큰게. (나도 잘 모르겠다.)
- (2) 저거 누게네 경운기라니(냐)? (저거 누구네 경운기더냐?)
몰른 사름네꺼 략디다.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 (3) 어덜 경 돌음이니(냐)? (어덜 그렇게 달려가니?)
저더 구경허려 감시네. (저기 구경하러 가고 있네.)
- (4) 그더 무시거 이시니(냐)? (거기 뭐 있니?)
쥐구멍 달라졌수세. (쥐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 (5) 느 무신 반찬 좋아허느니(냐)? (너 무슨 반찬 좋아하니?)
다 잘 먹읍니다. (다 잘 먹습니다.)
- (6) 아버지 어덜 가니(냐)? (아버지 어덜 가더냐?)
큰집의 갔다 오켄 험디다. (큰집에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 (7) 느 어디 가젠 출림니(냐)? (너 어디 가려고 차리니?)
서귀포 갔다 오켄마썸? (서귀포 다녀오려고 합니다.)
- (8) 오늘 무사 학교 안 감시니(냐)? (오늘 왜 학교 안 가니?)
오늘 공휴일 아니꽈.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 (9) 어느제 이 집 짓어시니(냐)? (언제 이 집 지었니?)
작년의 짓어서. (작년에 지었어요.)

19) 黃炳淳(1980), “의문문의 특수성에 대하여”, 『嶺南語文學』7, pp. 136.

- (10) 가의네 어디 감서니(냐)? (그 애들 어디에 가고 있더냐?)
도서관 감십디다. (도서관에 가고 있음디다.)
- (11) 가의네 무시거 먹어서니(냐)? (그 애들 뭐 먹었더냐?)
빵 먹엇던 험디다. (빵 먹었다고 함디다.)
- (12) 이거 누게가 흔거니(냐)? (이거 누가 한 거니?)
자의가마썸. (저 애가 했어요.)
- (13) 이거 얼마론 될거니(냐)? (이거 얼마면 될 거니?)
500 원이론 될거우다. (500 원이면 될 겁니다.)
- (14) 이 밤의 어딜 갈 말이니(냐)? (이 밤에 어딜 간단 말이나?)
경해도 가집니다게.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 (15) 아픈 아이신디 무시거 상 가지몬 좋커니(냐)? (아픈 아이한테 뭘 사 가면 좋겠니?)
통조림 상 글음서. (통조림 사서 감시다.)
- (16) 가원 무시거 잘 먹커라니(냐)? (그 애 뭘 잘 먹겠더냐?)
아무거나 잘 먹컵디다. (아무것이나 잘 먹겠습디다.)

위의 (1)~(16)까지의 발화들은 文中에 모두 疑問詞가 들어 있으며 下降調의 抑揚을 지니 疑問詞의 내용에 대한 答을 요구하는 說明疑問인데, 앞의 ‘-냐’ 疑問法의 語幹構成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方言에 있어서 說明疑問으로 쓰인 語尾 ‘-니’는 모두 ‘-냐’로 대체되어 사용되며 抑揚은 물론 ‘-니’와 동일하다. 그러나, 계층에 따라 다소 달라 老年層에서는 說明疑問일 때는 ‘-니’가, 判定疑問일 때는 ‘-냐’가 주로 선택되는데, 中年層 以下에서는 說明疑問에서도 ‘-냐’가 빈번히 쓰인다.

이로 보아 ‘-냐’는 判定疑問에, ‘-니’는 說明疑問에 각기 기능을 달리하여 쓰였으나 점차 ‘-냐’ 語尾만으로 抑揚을 달리하여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의 구실을 두루 하게 되는 것이라 본다. 이는 體系의 動搖가 일어나 후대에 갈수록 單一形態로 統一化하는 작용이 강해져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⁰⁾

3) ‘-냐’ 疑問語尾

- (1) 넌 무시거 잘 먹나? (넌 뭐 잘 먹니?)
국수가 좋은다. (국수가 좋아.)
- (2) 너 무신거 험나? (너 뭐 하니?)
놀암시네. (놀고 있어)
- (3) 장에 강그네 무시거 샀나? (시장에 가서 뭐 샀니?)
바지 사서. (바지 샀어.)

20)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6, pp. 76~77.

(1)은 主語가 청자나 제삼자일 때 주어의 일반적인 속성을 묻는 觀念形이며, (2)는 主語가 청자인 경우 청자에게 현재의 행동의 상태를 묻는 것이다. (3)은 ‘-나’ 語尾에 과거를 나타내는 先語未語尾가 前接된 형태로 主語가 청자나 제삼자일 경우에 발화된다.

- (4) 가의네 밥 먹어시나? (그 애들 밥 먹어 있니?)
 응, 먹곡 치우곡 다 한다. (응, 먹고 치우기까지 다 한다.)
 (5) 지네만 잘 놀았시나? (자기들끼리만 잘 놀고 있니?)
 으게, 잘도 착한다. (그래, 참 착해.)

(4)는 청자가 가의네(제삼자)를 대면할 때면 언제나 밥을 먹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를 묻는 발화로 제삼자가 주어일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 때 ‘-나’ 대신 ‘-냐’를 사용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이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를 묻는 발화가 된다.

(5)는 청자가 지네(제삼자)를 대면할 때면 언제나 잘 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이 때도 ‘-나’ 대신 ‘-냐’를 쓰면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네끼리 잘 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내용의 발화가 된다.

그러므로, 主語가 제삼자일 경우 ‘-나’ 語尾에 ‘-아시/어시’, ‘-암시/엄시’가 前接되면 主語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 ‘-냐’는 단순한 異形態가 아니라 제각기 고유한 기능을 지닌 疑問法 語尾라 본다.

그런데, 앞의 발화 중 (1)과 같이 用語의 語幹에 ‘-나’가 직접 연결되고 끝의 抑揚이 처져서 발화되는 경우 제삼자가 主語가 되어 叙述法으로 쓰이기도 한다. 단, 음성 환경상 제약이 따라서 用語의 語幹이 무성음으로 끝난 말일 때로 한정된다.

- (6) 어디 가나? (어디 가니?)
 i) 그냥 나왔수다. (그냥 나왔습니다.)
 ii) 경도 갈 디 엇이나? (그렇게도 갈 테가 없니?)
 (7) 무시거 허나? (뭐 하니?)
 i) 이거 치와불펜마썸. (이거 치워 버리려 해요.)
 ii) 경도 할 일 엇이나? (그렇게도 할 일 없니?)
 (8) 어떻 허나? (어떻게 하니?)
 i) 영 허문 안 됩네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ii) 경 해도 허여보라. (그래도 해 봐라.)
 (9) 무사 허나? (왜 하니?)
 i) 나가 안 허문 누께가 험네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
 ii) 게문 내불까? (그럼 봐 들까?)

(6)~(9)의 발화들은 모두 主語가 청자인 경우이다. (6)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밖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上位者인 화자가 下位者인 청자가 행하는 동작을 보고 하는 발화이다. (7)은 화자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일을 하고 있는(땀전피우는) 청자에게 나무라는 식의 발화로서 각각 i)의 응답들과 대응된다.

(8)은 화자의 생각이나 가르쳐 준 것과는 달리 행하는 청자에게 핀잔을 주며 잘못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9)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떠맡아 하는 청자에게 할 필요가 없음을 내포하고 행해진 발화들인데, 각각 i)의 응답들과 대응이 된다.

또한 위의 발화들에서 主語가 화자인 경우 (6)은 상대방의 말을 들은 화자가 갈 데가 마땅치 않거나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발화가 된다. (7)은 상대의 발화에 대하여 별로 할 게 없다는, (8)은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9)는 다른 사람의 일이니 자신은 하지 않을 것임을 뜻하는 발화가 되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모두 ii)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40) 누가 가나? (누가 가니?)

계메, 아무도 안 가젠 헐거라이. (글쎄, 아무도 안 가려 할 거야.)

11) 언제 가나? (언제 가니?)

계메계, 갈 시간 이서시믄 그 전의 갖추. (글쎄말이야, 갈 시간이 있었으면 벌써 갔을 거야.)

(10), (11)의 발화들은 主語가 화자일 경우로서 (10)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내포하며 (11)은 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뜻을 포함하는데, (6)~(9)의 i)와 같은 유형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主語가 청자일 경우에는 화자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 즉 現場性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만 발화가 가능한데, (10), (11)은 모두 앞으로 행해질 상황의 일이기 때문이다.

4) '네' 疑問語尾

(1) 나 이거 잘 만들었시네, 이? (나 이거 잘 만들고 있지, 응?)

으게, 난 그츄룩 못 만들꺼라. (그래, 나는 그렇게 못 만들겠더라.)

(2) 느 오늘 집의 이실거네, 이? (너 오늘 집에 있을 거지, 응?)

아니, 우리 할망칩의 갈저게. (아니, 우리 할머니 집에 갈 거야.)

(3) 날씨 좋았적허네, 이? (날씨 좋을 것 같지, 응?)

응, 뻗 남신계게. (그래, 햇빛 나잖아.)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主語가 누구든 상관없이 호응이 되며, 발화의 내용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단정이 강하게 개입되어 청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뜻이 내포된 疑問法이다.

(1)은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단정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2)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그 내용에 수긍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3)

은 날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이 때의 공통점은 '이'라는 添辭를 後接시킴으로써 앞의 내용에 대한 肯定的 대답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 (4)~(6)의 발화와 대비시켜 봄으로써 분명해진다.

(4) 느 무시거 험나? (너 뭐 하고 있니?)

보문 모르크나. 소지험시네게. (보문 모르겠니. 청소하고 있잖아.)

(5) 이거 쉽다 이? (이거 쉽다. 응?)

거보라, 잘해점시네게. (그것봐타, 잘할 수 있잖아.)

(6) 가의 보기 담지 안허게 착허다. (그 애 걸보기 같지 않게 착하다.)

나가 무시거옌 쫄아니? 잘도 착허네게. (내가 뭐라 말하더냐? 참 착하잖아.)

(4)~(6)에 보이는 '-네'는 平叙法에 쓰인 형태소이다.

(4)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단정을 하는 발화인데, 그 이면에는 묻은 내용에 대해 화자도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의향이 내포되어 있다. (5)는 어떤 일이 용이함에 대해 '이'를 後接시킴으로써 동의를 구하자 그것은 이미 간파한 내용임을 암시하면서 동의하는 발화이다. (6)은 제삼자의 행동에 대해 의외임을 나타내자 이미 한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는 게 아니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네'는 平叙法과 疑問法에 공통으로 쓰이는 終結語尾인데, 平叙法에서는 화자의 질문에 대해서 答을 하거나 화자의 발화에 대해 수긍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내면에는 '상대방도 잘 알고 있다' 내지는 '내가 말한 바와 같다'는 전제가 들어 있으며 '-게'라는 添辭가 介在되기도 한다.

疑問法에 쓰인 '-네'에는 '이'의 後接이 필수적인데, 이는 화자가 주관적인 단정을 내리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 '-다系' 疑問語尾

No.	先行形態의 構成	疑問法語尾
1	體言 -이 -ㄴ	다/디
2	體言 -이 -라 -ㄴ	
3	用言 -ㅁ -이 -ㄴ	
4	用言 -ㄴ	
5	用言 -ㄹ	
6	用言 -암/엄	
7	用言 -아/어 -ㄴ	

1) ‘-다’ 疑問語尾

- (1) 느 저 우녁집 딸인다? (너 저 윗집 딸이니?)
예, 맞수다. (예, 맞습니다.)
- (2) 는 그 때 학생이란다? (넌 그 때 학생이었니?)
예, 고등학교 때 닐수다. (예, 고등학교 때 같습니다.)
- (3) 지금 멏신지 앓인다? (지금 멏 시인지 아니?)
아이고, 벌써 이츄록 되시냐? (아이구, 벌써 이렇게 됐니?)
- (4) 애야, 집의 이신다? (애야, 집에 있니?)
예, 이디 잇수다. (예, 여기 있습니다.)
- (5) 나 문저 가크메 잇당 올다? (나 먼저 갈 테니 이따 오겠니?)
ஃ꿈 잇당 꼴이 가게마썸. (조금 이따 같이 갑시다.)
- (6) 텔레비 뵙다? (텔레비전 보니?)
숙제 허엿수다. (숙제하고 있습니다.)
- (7) 느 나 볼펜 뵙다? (너 내 볼펜 뵙니?)
아니, 못 뵙저. (아니, 못 봤어.)

(1)~(7)의 예문들은 疑問의 내용에 대한 可否의 대답을 요구하는 判定疑問인데, 主語가 청자일 때만 呼응이 된다.

(5)처럼 ‘-다’ 語尾에 未來를 나타내는 先語未語尾 ‘-ㄹ’이 前接된 때는 ‘-다’ 대신 ‘-타’가 異形態로 많이 쓰인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대신 ‘-디아, -디야, -다’ 등이 異形態로 쓰이는데, 주로 判定疑問에 쓰이는 ‘-다’에 한하며 ‘-다’보다 다소 부드러운 衞安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안/언’ 다음에 오는 ‘-다’는 ‘-자, -쟈’로, 未來의 先語未語尾 ‘-ㄹ’ 다음에 오는 ‘-다(-타)’는 ‘-차, -쟈’로도 쓰이는데, 이는 구개음화가 적용된 형태이다.

- (8) 느 멏살 먹언다? (너 멏 살 먹었니?)
열 일곱이우다. (열 일곱입니다.)
- (9) 그거 알앙 무시겨 헐다?(그건 알아서 뭐 하겠니?)
그냥 알문 어떻 헐로고? (그냥 알면 어떠니?)
- (10) 느네 집 어딘다? (너의 집 어디니?)
저디마썸. (저깁니다.)

(8)~(10)은 文中에 疑問詞가 들어 있어서 ‘-다’ 語尾가 疑問詞의 내용에 대한 答을 요구하는 說明疑問法에도 쓰이는 발화의 예이다.

- (11) 느 어디 감인다? (너 어디 가니?)
 i) 아니, 그냥 나와봐서. (아니, 그냥 나와 봤어.)
 ii) 바닷에 감저. (바다에 간다.)
- (12) 무시저 먹언다? (뭐 먹었니?)
 i) 예, 밥 먹었수다. (예, 밥 먹었습니다.)
 ii) 밥 먹어서. (밥 먹었어.)
- (13) 어느제 우리집의 올다? (언제 우리집에 오겠니?)
 i) 기여, 가마게. (그래, 꼭 갈께.)
 ii) 널랑 가마. (내일은 갈께.)

(11)~(13)에 쓰인 ‘-다’는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에 공통적으로 쓰인 것이다.

(11)에서 ‘감인다’에 焦點을 두고 끝을 올려 발화하면 어디인지간에 가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 되어 청자는 i)과 같이 예, 아니오’로 답한다. ‘어디’에 焦點을 두고 발화하면 ‘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곳이 어딘지를 묻는 것으로, 청자는 이에 대해 ii)와 같이 답하게 된다.

(12) 역시 ‘먹언다’에 焦點을 두고 抑揚을 높이면 무엇이든지간에 먹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判定疑問으로 i)의 답과 대응이 된다. ‘뭐’에 焦點을 두고 끝을 내리면 ‘먹었음’을 전제로 하고 그제 무엇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이 되어 청자는 ii)처럼 다른 게 아닌 밥이라 대답하고 있다.

(13)은 ‘올다’에 焦點을 두어 上昇調로 발화하면 언제이든지간에 올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청자는 i)처럼 답한다. ii)는 화자가 상대방이 올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에 焦點을 두고 下降調로 발화하여 그 날이 언제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에 대한 응답이다.

- (14) 그 어미 무로되 네 엇데 안다? (月釋 23. 74 a)
 (15) 네 信ᄃᆞᆫ다 아니ᄃᆞᆫ다? (釋詳 9. 26 b)
 (16) 너희들이 무스글 보느슨다? (月釋 10. 28 a)
 (17) 또 엇데 得ᄃᆞᆫ다? (楞嚴 5. 22 a)

文例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 있어서도 ‘-다, -르다’ 語尾가 쓰였는데, 이 語尾들로서 說明疑問과 判定疑問 표시의 두 가지 기능을 다하여 상대방의 意圖를 요구하였다. 이는 主語가 청자일 때에만 호응하게 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²¹⁾

21)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6. pp.71.

2) ‘-디’ 疑問語尾

- (1) 는 누계집 딸이니? (넌 누구집의 딸이니?)
나 저 셋동네집 딸 아니봐. 22) (나 저 셋동네집 딸 아닙니까.)
- (2) 는 그 때 몇살이란다. (넌 그 때 몇 살이었니?)
ஹ팔락흔 매우다. (어렸을 때였습니다.)
- (3) 무사 가의만 경 즈들람다? (왜 그 애만 그렇게 괴롭히니?)
나 무사 어떻 험수과? (내가 어떻게 하는가요?)
- (4) 느 돈 얼마 이신디? (너 돈 얼마 가지고 있니?)
요새 원 돈이 어수다. (요즘은 돈이 전혀 없습니다.)
- (5) 어느 걸로 먹을디? (어느 것을 먹겠니?)
아무거나 먹켜게. (아무거나 먹겠다.)
- (6) 그디서 무시저 ㅎ염디? (거기서 뭐 하니?)
나 이디서 글 보암수다. (나 여기서 글 보고 있습니다.)
- (7) 어디 갔다 완디? (어디 갔다 왔니?)
므실 갔다 왓수다.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1)~(7)의 예문들은 ‘-디’ 疑問法의 語幹構成과 완전히 일치하며, 상대방에게 疑問詞의 내용에 대해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說明疑問으로 主語가 청자일 때만 발화된다.

(4)와 같이 語幹에 직접 ‘-ㄴ 語尾가 연결될 때는 그 語幹의 품사가 형용사라는 특징이 있다. (5)와 같이 語幹에 未來를 나타내는 先語未語尾 ‘-ㄹ’이 後接되면 상대방의 意志를 묻는 발화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ㄹ티’가 異形態로 더 잘 쓰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다’는 判定疑問, ‘-디’는 說明疑問의 기능을 함이 일반적이거나 ‘-다’ 語尾만으로도 抑揚을 달리하여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는 것은 體系의 동요로 인한 單一形態로의 統一化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3. ‘-가’系 疑問語尾

No	先行形態의 構成	疑問法語尾
1	體言	가/고
2	用言 一ㅁ	
3	用言 一ㄴ(ㄹ)것	

22) 이 때의 ‘아니봐’는 添辭처럼 덧붙여 단정 내지는 강조의 뜻을 더해 준다.

1) ‘-가, -고’ 疑問語尾

- (1) 느네 오늘 식계가? (너의 집 오늘 제사니?)
 아이고, 널 아니파. (아이구, 내일이잖아요.)
- (2) 이저 야윳거 아니가? (이저 애 거 아니니?)
 무사, 나저라. (왜? 내 거야.)
- (3) 는 밥 먹음가? (넌 밥 먹고 있니?)
 예, 밥 먹음수다. (예, 밥 먹고 있습니다.)
- (4) 오늘 머리 그칠것가? (오늘 머리 자를 거니?)
 아니우다, 널랑 그치젠마썸. (아닙니다, 내일 자르겠어요.)
- (5) 느네 개학은 언제고(가)? (너희 개학은 언제니?)
 널이우다. (내일입니다.)
 그 집 셋년 일름이 무시것고(가)? (그 집 둘째딸 이름이 뭐니?)
 몰르쿠다. (모르겠습니다.)
- (6) 느 무시거 험고(가)? (너 뭐 하고 있니?)
 숙제 험수게. (숙제하고 있어요.)
- (7) 언제 올라갈거고(가)? (언제 올라갈 거니?)
 그냥 이더 살거우다. (그냥 여기 살 겁니다)

위의 예문들을 볼 때 ‘-가, -고’는 體言 敘述語에 後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가, -고’를 添辭(particle)로 처리하기도 한다.²³⁾

위의 語幹形成을 보면, 體言, 用言의 名詞形, ‘-르거’가 각각 ‘-가 -고’에 前接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體言 敘述語에는 과거나 미래로 표현될 수 없으므로 用言 敘述語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와 같이 用言 語幹에 관형사형 ‘-르거(것)’처럼 名詞化 과정을 거친 후 가능해진다. ‘아니’가 기원적으로 체언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는 사실이다.²⁴⁾

그런데, (1)~(4)는 疑問詞 없이 yes, no의 答을 요구하는 判定疑問, (5)~(7)은 文中에 疑問詞를 배치시켜 疑問詞의 내용에 대한 答을 요구하는 說明疑問으로 각각 대립된다.

- (8) 이 쓰리 너희 증가? (月釋 8권 94b)
 (9) 엇데 보디 못흥고? (榜嚴 2권 71b)

위의 후기 중세국어의 예문에서도 體言 형태에 직접 疑問添辭인 ‘-가’, ‘-고’를 연결시켜 疑問法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23)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6, pp.67.

李承旭(1963), “疑問添辭攷” 「국어국문학」 26, pp.443~446.

24) 安秉禧(1959), “中期語의 否定語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pp.633.

이로 보아 方言에서의 ‘-가, -고’ 疑問法은 ‘-가’가 判定疑問으로, ‘-고’가 說明疑問으로 쓰이던 후기 중세 국어의 文獻語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⁵⁾

- 10) 이거 느 책계? (이거 네 책이지?)
응, 나 책이라. (응, 내 책이야.)
- 11) 가윈 공부험계? (그 애는 공부하고 있지?)
아니여, 공부험 리가 이시냐? (아냐, 공부할 리가 있니?)
- 12) 우린 바당에 갈거계? (우린 바다에 갈 거지?)
계, 우리 바당에 갈거라. (그래, 우리 바다에 갈 거야.)

—‘계’ 역시 ‘-가, -고’와 語幹形式은 같으나 화자의 內心에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心的 태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說明疑問은 나타나지 않는다.

- 13) 그거 진짜 잇어난 일이고?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니?)
어, 정말 잇어난 일아냐. (그래, 정말 있었던 일이잖니.)
- 14) 느네 집 도새기 있고? (너희 집에 돼지 있니?)
도새기 엇져. (돼지 없어.)
- 15) 지금 비 왠고? (지금 비 오고 있니?)
계, 왠잖아. (그래 오잖아.)
- 16) 아오계, 안 씬 되고? (어머, 안 써서 되니?)
계문 어뎡 쓸터? (그럼 어떻게 쓰겠니?)
- 17) 아냐, 곶이 허문 될거 아냐고? (아니, 같이 하면 될 게 아니겠니?)
에에, 난 실꾸다. (아니, 난 싫어.)
- 18) 이거 나가 헛고? (이거 내가 했어?)
계, 지가 헛주계. (그래 네가 했잖아.)

위의 예문들처럼 體言에, 語幹에, 未完了相의 형태소 ‘-암/엄’에, 과거를 나타내는 先語 未語尾 ‘-앗/엇’ 등에 疑問法 語尾 ‘-고’가 연결되는데, 특이한 것은 疑問詞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에 疑問詞가 배치되어 일반적인 疑問法이 될 때와는 달리 특이한 疑問法이라 할 만하다. 즉 疑아함을 나타내거나 발화의 내용에 대한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25)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6, pp.65~67.
千時權(1975), “慶北方言의 疑問添辭에 대하여”, 「國語教育研究」7, pp.31~32.

2) ‘-카, -코’ 疑問語尾

- (1) 엄마, 쓰레기 나가 비우카? (엄마, 쓰레기 내가 비울까?)
기여, 배랑 안 무겨우난 강 비왕 오라. (그래, 별로 안 무겨우너 가서 리우고 오너라.)
- (2) 우리만 밥 먹엿시카? (우리만 밥 먹고 있을까?)
응, 우리만이라도 먹엿시게. (그래, 우리만이라도 먹고 있자.)
- (3) 그걸 랑 느가 허카? (그것은 내가 할까?)
기여, 나라도 허마. (그래, 나라도 할께.)
- (4) 가의가 그걸 벌써 다 헤시카? (그 애가 그걸 벌써 다 했을까?)
그것사 다 헤실테주게. (그거야 다 했겠지.)

위의 예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 疑問法의 主語가 누구인가에 따라 응답문의 叙述語에 서로 다른 叙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처럼 主語가 화자 자신일 경우에는 응답문이 命令法으로, (2)와 같이 화자를 포함한 복수 主語이면 주로 請誘法으로 나타난다. (3)처럼 主語가 청자이면 叙述法과 대응이 되며, 제삼자가 主語일 때는 主語의 수와 관계없이 推定의 叙述法과 대응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카, -코’의 의미는 主語가 누구인가 하는 話用論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主語가 화자일 경우 主語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른 叙法이 나타나는 까닭은 命令法은 단수거나 복수거나 청자만을 主語로 삼으며 請誘法은 역시 화자만을 主語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의 ‘-카’는 疑問詞 없이 쓰여 疑問의 내용이 청자의 뜻에 비추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가려 주기를 바라는 判定疑問의 기능을 하는 형태이다.

다음은 ‘-카’와 ‘-코’가 같이 나타나는 발화를 보기로 한다.

- (5) 물 다 끓엿신디 이레 무시거 놓코(카)? (물이 거의 다 끓고 있는데 여기 뭐 넣을까?)
노물 썬거 봐불라. (나물 썬 거 봐 버려라.)
- (6) 무시거 ㅎ명 놀코(카)? (무엇 하면서 놀까?)
음악이나 듣게. (음악이나 듣자.)
- (7) 느네 랑 어디깁지 허코(카)? (너희들은 어디까지 할까?)
이디깁지만 허크라. (여기까지만 할께.)
- (8) 가의네 무시거 ㅎ염시코(카)? (그 애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틀림웃이 공부ㅎ염실거여. (틀림없이 공부하고 있을 거야.)

26) 김하수(1979), “-르/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말』 4집(연세대), pp. 62.

(5)~(8)은 用言의 語幹, 語幹'-았시/었시'(未完了存續相), 語幹'-아시/어시'(完了存續相)에 '-코'를 後接시키고 文中에 疑問詞를 필수적으로 배치시켜 疑問詞의 內容에 대해 대담해 주기를 바라는 說明疑問의 發話들이다. 이 때 年少層에서는 判定疑問의 기능을 가진 '-카'가 '-코' 대신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9) 배 고프냐. 우리 무시거 먹카? (배 고프니? 우리 뭐 먹을까?)

i) 응. 아무거나 먹게. (응. 아무거나 먹자.)

ii) 밥이라도 먹게. (밥이라도 먹자.)

(10) 우리 어디서 쉬어 가카? (우리 어디서 쉬어 갈까?)

i) 에에, 그냥 빨리 가게. (아니, 그냥 빨리 가자.)

ii) 이디 조끔 안갓당 가게. (여기 조금 앉았다 가자.)

(11) 어느제 순이네집 가카? (언제 순이네 집 갈까?)

i) 응, 놀러 가게. (응, 놀러 가자.)

ii) 이번 일요일날 가게. (이번 일요일 날 가자.)

(9)의 發話에서 '먹카'에 焦點을 두고 끝을 올려 抑揚이 上昇調가 되면 무엇이든지간에 먹을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判定疑問으로 그에 대한 응답문은 i)과 같이 나타난다. '무시거'에 焦點을 두고 下降調의 抑揚이 되면 무엇인가 먹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무엇인지 대담해 주기를 요구하는 說明疑問으로 ii)의 응답문과 대응된다.

(10)의 發話에서는 '쉬어 가카'에 焦點을 두면서 抑揚을 올리면 어디에서든지간에 쉬어 갈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內容이 되어 ii)의 응답문으로 나타난다. '어디'에 焦點을 두고 抑揚을 내리면 쉬어 갈 것을 전제로 하여 그곳이 어디면 좋겠는지를 묻는 說明疑問으로 청자는 ii)와 같이 答한다.

(11)의 發話에서도 '가카'에 焦點을 두고 上昇調의 抑揚으로 물으면 언제든지간에 갈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判定疑問이 되어 그에 대한 응답은 i)과 같이 나타난다. 한편 '어느제'에 焦點을 두고 下降調로 물으면 하여간에 갈 것을 전제로 하고 그제 언제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이 되어 청자는 ii)와 같이 發話한다.

이러한 點으로 볼 때 의지 내지는 추정 的 뜻을 내포하는 '-카, -코' 疑問法에서 '-코'는 說明疑問의 기능을, '-카'는 說明疑問과 判定疑問의 기능을 두루 하는 疑問法 語尾임을 알 수 있다.

4. ‘-니까’系 疑問語尾 : ‘-니까, -니까’ 疑問語尾

No.	先行形態의 構成	疑問法語尾
1	禮言 -이	니까/니까
2	禮言 -이 -라	
3	用言	
4	用言 -느	
5	用言 -아/어	
6	用言 -르거	
7	用言 -암시/엄시	
8	用言 -아시/어시	
9	用言 -암시/엄시 -르거	

- (1) 이거 어디 열쇠가? (이제 여기 열쇠일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 (2) 아까 와난 아의 앞집 딸이랑가? (아까 왔던 애 앞집 딸이던가?)
예, 순이 친구난 만나래 왔수게. (예, 순이 친구니까 만나러 왔습니다.)
- (3) 가의 존셈은 이신가? (그 애 잔정은 있을까?)
예게, 경 어멍 아방을 위헌텐 험수게. (예, 그토록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는 걸요.)
- (4) 우리 조께 공부 잘허는가? (우리 조카 공부는 잘하는가?)
예, 조꿈 험네다. (예, 조금 합니다.)
- (5) 가의 조반은 먹언가? (그 애 아침밥은 먹던가?)
예, 인칙에 먹었수다. (예, 아까 먹었습니다.)
- (6) 비 이젠 오지 않을건가? (비 이젠 오지 않을 건가?)
옴직도 허우다. (옴 것도 같습니다.)
- (7) 우리 삼촌 그냥 그더 살암신가? (우리 삼촌 그냥 거기 살고 계실까?)
어수다, 작년의 아덜네집의 갓수게. (아네요, 작년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 (8) 가의도 날 알암실건가? (그 애도 나를 알고 있을까?)
훤허게 암주게. (훤히 알지요.)
- (9) 나가는 길이 어던고? (나가는 길이 어떨까?)
이 질로 가는 것 님다. (이 질로 가는 것 같애.)
- (10) 우리가 가난 길이 어느 지경이랑고? (우리가 갔던 길이 어느 지경이던가?)
무사 그디가 사랑봉아니파게. (왜, 거기가 사랑봉 아넘니까.)
- (11) 가원 시방 어디 이신고?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을까?)
서울 산텐 험디다. (서울 산다고 합니다.)
- (12) 자원 무시거 잘 먹는고? (저 애는 무엇을 잘 먹을까?)
아무거나 잘 먹음네다.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 (13) 가원 어디 간고? (그 애는 어디 가던가?)
집의 갓수다. (집에 갔습니다.)

- 04) 가의 날 무시져 험진고? (그 애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밧되 가켄 험디다. (밧에 가갸다고 함디다.)
- 05) 무사 정 싸삼신고? (왜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게메게, 아무 일도 아닌저 님은디. (글썸말이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 06) 어떻 험 오맨만에 와신고? (어떻게 해서 오맨만에 왔을까?)
 그냥 놀레 왔수게. (그냥 놀러 왔어요.)
- 07) 순인 무시져 험실진고? (순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의사 공부험실테주. (그애야 공부하고 있겠지.)

위에서 보듯이 ‘-ㄴ가’와 ‘-ㄴ고’는 統辭論的 구성에서 볼 때 그 호응이 다르다. ‘-ㄴ가’는 疑問詞가 文中에 없으며 抑揚이 上昇調여서 特定の 主語가 特定の 敘述語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判定疑問의 형태이다. ‘-ㄴ고’는 疑問詞를 동반하며 抑揚이 下降調여서 疑問詞의 내용에 대해 答해 줄 것을 요구하는 說明疑問의 형태인 것이다.

그런데, 中年層 識者들 중에는 疑問詞의 유무에 관계 없이 ‘-ㄴ가’를 사용하여 ‘자네’에 호응하는 敘述語의 語尾로 발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써 ‘-ㄴ고’는 說明疑問에, ‘-ㄴ가’는 焦點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抑揚을 달리하여 說明疑問이나 判定疑問에 두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ㄴ가, -ㄴ고’는 體言 敘述語나 用言 敘述語에 두루 연결되어 나타나며 화자, 청자가 主語일 때는 발화되지 않고 主語가 제삼자일 때만 자연스럽게 호응된다.²⁷⁾ 그런데, 화자의 눈 앞에서 진행되는 행동 즉 [+現場性]을 가지는 文에서는 文장의 主語가 제삼자일 경우에도 非文이 된다. 그러나, 被包有文으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경우 被包有文으로 바뀌면 [-現場性]의 자질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敘述語에 따라 다소 의미가 달라져서 用言 敘述語가 올 때는 [-現場性]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懷疑와 疑懼를, ‘體言+繫詞’나 형용사 敘述語일 때는 [+stative]의 자질을 지니 화자의 懷疑, 또는 疑懼를 표시하는 間接疑問法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이 疑問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答해 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욕구와 부합하여 일종의 直接疑問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된다.²⁸⁾

이는 흔히 발화상에서 특징적인 사항, ‘-ㄴ고’ 疑問法에 대한 대답이 필수적이지 아니라는 것 과도 관련이 된다. 序論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疑問法의 본질은 文의 내용에 대한 疑問과 그 疑問에 대한 해답의 요구로 파악되는데, 이 ‘-ㄴ가, -ㄴ고’의 경우 疑問에 있어서는 直接的 疑問(질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요구의 경우에는 아주 약화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疑心에 머물게 된다. 청자가 있을 경우 비록 약화되긴 했어도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그 요구가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라는 데에서 이를 間接的 疑問으로 보는 것이다.²⁹⁾

27)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 研究”, 學術院 論文集 15, pp. 159.

28)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 研究”, 學術院 論文集 15, pp. 161.

29) 洪宗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考察”, 서울대학교 碩士論文, pp. 38~39.

08) 투구 세사라 네도 잇더신가? (龍歌 89.)

09) 各各 제 서르 닐오터 이이리 엇던 因緣이신고 후너니. (法華 1. 120 a)

위에서 보듯이 方言에서 실현되는 ‘-ㄴ가, -ㄴ고’ 語尾가 중세국어에서도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으로 그 기능을 달리하여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方言에서와 같이 間接疑問으로 쓰이던 ‘-ㄴ가, -ㄴ고’가 16세기 초기 문헌 <朴通詞諺解初刊本>에는 이미 直接疑問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直接活法에 쓰이는 현대국어의 疑問法의 기능과 일치로 보인다.³⁰⁾

5. ‘-ㄴ래/ㄴ라’ 疑問語尾

(1) 느네 무시거 먹을래? (너희들 뭐 먹겠니?)

i) 아니마썸, 곧 밥 먹어부난 안 먹쿠다. (아네요, 곧 밥 먹어서 안 먹겠습니다.)

ii) 아무거나 주는냥 먹쿠다.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2) 이 노래 불러질래? (이 노래 부를 수 있겠니?)

응, 느도 굴이 불러라. (응, 너도 같이 불러라.)

(3) 강 라면 좀 사올래? (가서 라면 좀 사오겠니?)

알아서. (알았어.)

(4) 정지에 강 사발 가져올라? (부엌에 가서 양푼 가져오겠니?)

에에, 싹튼게. (아니 싫어.)

(5) 우리 하르방 어디 간지 알아질라?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갔는지 알 수 있겠니?)

몰르메. (모르겠어.)

(1)에서 上昇調로 발화하면 무엇이든지간에 먹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청자의 의향을 묻는 判定疑問으로 i)의 대답과 대응이 된다. 疑問詞에 焦點을 두어 下降調로 발화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대답해 주기를 요구하는 說明疑問이 되어 ii)의 응답을 요구한다.

(2)~(5)는 用言의 語幹 내지 거기에서 ‘-아지/어지’를 後接하여 ‘……수 있다’는 의미를 더하면서 청자의 의사를 타진하는 判定疑問의 형태인데 ‘-ㄴ래’는 ‘-ㄴ래’의 異形態이다.

‘-ㄴ래’는 主語가 청자일 때만 쓰이고 叙述語가 動作動詞일 경우에만 쓰인다. 그 이유는 ‘-ㄴ래’가 갖는 속성이 청자의 의지를 타진하는 것으로 體言이나 狀態動詞 같은 [+stative] 叙述語에는 의지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자의 의지를 타진하므로 항상 質問으로만 쓰인다.³¹⁾

30)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6, pp.79.

31)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 研究”, 學術院 論文集 15, pp.131.

6. -지 疑問語尾

No.	先行形態의 構成	疑問法語尾
1	體言 --이	지
2	用言 --口(기)	
3	用言	
4	用言 --았/었	
5	用言 --았/었	
6	用言 --았/었	
7	用言 --겠	
8	用言 --리(느)거	

- (1) 너 오늘 당번이지? (너 오늘 당번이지?)
아니여, 다른 아이여. (아냐, 다른 애야.)
- (2) 너만 집의 가지지? (너만 집에 가지지?)
집의 일 이서부난 먼저 가크라.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어.)
- (3) 이 꽃 폼닥허지? (이 꽃 예쁘지?)
응, 완전 곤개. (응, 참 예뻐.)
- (4) 나안티 전화 안 와났지? (나한테 전화 안 왔었지?)
어, 안 와선개. (그래, 안 왔었어.)
- (5) 나 글 못 썬지? (나 글 못 쓰지?)
나보단 낫다. (나보다는 나아.)
- (6) 너네 식군 강 보른 밥 먹었지? (너희 식구는 가 보면 밥 먹고 있지?)
응, 나가 썰 늦게 들어가메. (응,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가.)
- (7) 이 꽃 곧 피겠지? (이 꽃 금방 피겠지?)
응, 경 험직허다. (응, 그럴 것 같애.)
- (8) 너 정말 이거 안 해 줄거지? (너 정말 이거 안 해 줄 거지?)
오, 절대 안 해 주키여. (그래, 절대 안 해 주겠어.)

위의 예에서 보듯이 시제에 무관하게 主語가 누구든 제약 없이 발화된다.
(5)처럼 화자가 主語일 경우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상대방에게 다지는 것이다.
(1)(2)(8)과 같이 청자가 主語이면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판단 사실이 옳음을 다지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이 즉시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3)(4)(6)(7)처럼 제삼자가 主語이면, 화자가 主語일 때처럼 제삼자인 主語의 상태 내지는 행위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상대자에게 다지는 기능을 한다.

즉 ‘-지’는 화자의 확신이나 화자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상대자에게 다짐하면서 화자가 긍정(affirmative)의 답을 기대하거나 불합리한 상대자의 행동을 시정해 줄 것을 바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의문의 내용을 화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반드시 요구되는 確認疑問의 구실을 한다. 이 疑問法에는 疑問詞를 동반하지 않는 判定疑問에서만 나타난다.

Ⅲ. ㅎ여體 疑問法

1. ‘-르로고’ 疑問語尾

- (1) 가의네 집 알아질로고? (그 애 집 알 수 있겠니?)
응, 알네. (응, 알아.)
- (2) 누게 아는 사람 어신가? (누구 아는 사람 없을까?)
가의네집 알아질로고. (그 애 집 알 수 있겠어.)
- (3) 그거 맛 좋을로고? (그것 맛 좋아?)
응, 잡도 좋으네. (응, 참 맛있어.)
- (4) 저거 혼 번 맛 봅서. (저거 한 번 맛 보세요.)
그거 맛 좋을로고. (그거 맛 좋겠어.)

(1)은 그애의 집을 알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묻거나 화자의 內心에 그애의 집을 알 수 없을 거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고 따지듯이 묻는 疑問法이다. (2)는 화자의 疑問에 대해서 자기는 알 수 있겠다는 청자의 응답을 나타내는 平叙法에서 ‘-르로고’가 실현되어 나타났다.

(3)은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判定疑問이거나 화자로서는 맛이 없다는 의견을 전제로 하고 청자에게 자신과 다른 생각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疑問法이다. (4)는 (3)과 抑揚만을 달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平叙法의 형태이다.

(1)(3)은 주로 年少層에서, (2)(4)는 中年 男子層에서 많이 나타난다.

- (5) 우리만 가도 될로고? (우리만 가도 되겠니?)
게문 어떻게나? (그럼 어떡하니?)
- (6) 누게영 곶이 가쿠가? (누구와 같이 가겠어요?)
우리만 가도 될로고. (우리만 가도 되겠어.)
- (7) 똑곶이 해도 될로고? (똑같이 해도 되겠어?)
게, 됴주게. (암요, 되구말구요.)
- (8) 이걸 어떻게네까?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똑곶이 해도 될로고. (똑같이 해도 되겠어.)

(5)는 우리끼리만 가도 되는지 의심스럽거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화자가 청자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행해진 疑問法이다. (6)은 (5)와 형태는 같되 抑揚만 달리하여 우리만

가도 될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平叙法에 ‘-르로고’가 쓰인 발화이다.

(7)은 똑같이 해도 될 것인지의 의미를 품거나 부정적 견해를 가진 화자가 다그쳐듯이 묻는 疑問法이며, (8)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진술하는 平叙法에 ‘-르로고’가 쓰인 예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르로고’는 語調만을 달리하여 疑問法과 平叙法에 共히 쓰이는 疑問·平叙法 同型的 형태소이다. 그런데, 다소 쓰이는 계층을 달리하여 疑問法的 ‘-르로고’는 年少層에서, 平叙法的 ‘-르로고’는 中年 男子層에서 주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

2. ‘-라’ 疑問語尾

(1) 이제 무시거 헐거라? (이제 뭐 할 거야?)

i) 아니, 배랑 헐 일 어서. (아니, 별로 할 일 없어.)

ii) 소지혜사 헐거라. (청소해야 할 거야.)

(2) 널 새벽의 어디 갈거라? (널 새벽에 어디 갈 거야?)

i) 아니, 그냥 집의 이시키라. (아니, 그냥 집에 있겠어.)

ii) 밧디 가크라. (밭에 가겠어.)

(3) 윤애 어머니, 저녁에 랑 나영 바릇까지 안허커라. (윤애 어머니, 저녁에는 나와 바다에 가지 않겠어?)

에에, 난 므실 캣당 오커라. (아니, 나는 마을에 갔다 오겠어.)

(4) 게난 그 사름은 헐 일 다 허연 돌아맹김이라? (그럼 자넨 할 일 다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경해도 헐 일 어서 즐리도는건 아니라. (그래도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5) 오늘 메칠이라? (오늘 몇 일이야?)

보름이라. (15 일이야.)

(1)에서 用言의 語幹에 강세를 두어 발화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닌지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判定疑問으로 i)의 대답과 대응이 된다. ‘뭐’에 焦點을 두어 물으면 說明疑問이 되어 ii)와 같은 대답을 유도하는데, 疑問法에 나타난 ‘-라’ 語尾가 ii)의 平叙法에서도 발화가 되고 있다.

(2)에서도 用言 語幹에 강세를 두어 발화하면 어딘가에 갈 것인지 아닌지 대답해 주기를 요구하는 判定疑問이 되어 청자는 i)과 같이 대답한다. ‘어디’에 강세를 두어 발화하면 어딘가에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그게 어디인지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說明疑問으로 ii)의 대답을 유발하게 되는데, i) ii)의 平叙法에도 ‘-라’ 語尾가 나타난다.

(3)은 ‘의지’를 나타내는 형태소 ‘-크’와 결합된 疑問法으로 청자의 의향을 타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답인 平叙法에도 ‘-라’ 語尾가 쓰였다. (4)는 平待語를 쓰는 사이에서 用言의 명사형에 ‘-라’ 語尾를 붙여 疑問法으로 실현되었고, 그 대답인 平叙法에서도 동일한 어미가 쓰였다. (5)는 體言에 ‘-라’ 語尾가 後接되어 疑問法과 平叙法으로 발화되고 있다.

이로 보아 ‘-라’는 平待間에 사용되는 疑問·平叙法 同型 語尾임을 알 수 있다.

3. ‘-멘’ 疑問語尾

- (1) 어디 가멘? (어디 가니?)
i) 아니, 그냥 놀멘. (아니, 그냥 놀고 있어.)
ii) 친구네 집의 가멘. (친구 집에 가.)
- (2) 너 무시거 허멘? (너 무엇 하니?)
i) 응, 이디 어지러운거 치우멘. (그래, 여기 너저분한 것들 치워.)
ii) 밧되 가젠 출리멘. (밤에 가려고 차려.)
- (3) 너네 집 누게 이시멘? (너희 집에 누구 있니?)
i) 아니, 아무도 어시멘. (아니, 아무도 없어.)
ii) 순이 완 놀멘. (순이가 와서 놀고 있어.)
- (4) 너 돈 이시멘? (너 돈 있니?)
다 써부런 어서. (다 써 버려서 없어.)

(1)에서 用言에 강세를 두어 上昇調의 語調로 발화하면 어디든지간에 가는지 안 가는지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判定疑問이 되어, i)의 대답과 대응된다. ‘어디’에 焦點을 두어 下降調로 발화하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으로 그 대답은 ii)와 같이 나타난다.

(2)에 있어서도 用言에 강세를 두면 무엇이든지간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判定疑問이 되며, 疑問詞에 강세를 두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이 되어, 청자는 이때 각각 i) ii)와 같이 대답한다.

(3)은 用言에 강세가 없혀 i)의 대답을 유발하는 判定疑問과 ‘누게’에 焦點이 주어져 ii)의 대답으로 나타나는 說明疑問에 모두 ‘-멘’ 語尾가 나타나며, 그에 대한 대답에도 같은 語尾로 실현되는 발화이다. (4)는 用言의 語幹에 직접 연결되어 年少者 내지 壯年層에서 별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행해지는 疑問法이다.

이와 같이 ‘-멘’ 語尾는 說明疑問과 判定疑問, 그리고 疑問法이나 平叙法에 공통으로 쓰이는 亨여體의 형태라 하겠다.

4. ‘-서’ 疑問語尾

- (1) 죽은아원 무시거 험서? (죽은애는 뭐 해?)
i) 아니, 저디 놀암서. (아니, 저기서 놀고 있어.)
ii) 머리 곱암수다. (머리 감습니다.)
- (2) 비 완신디 어디 가서? (비 오는데 어디 갔어?)
i) 아니, 저디 이서. (아니, 저기 있어.)
ii) 케메말이주, 이 비에도 놀레 가서. (글쎄말이야, 이렇게 비 오는데도 놀러 갔어.)

- (3) 벌써 장에 간 오라서? (벌써 시장에 갔다 왔어?)
 예, 거센 갔다와부러서. (그래, 얼른 갔다 와 버렸어.)
- (4) 집의 돛 키웠서? (집에 돼지 길러?)
 아니, 팔아부러서. (아니, 팔아 버렸어.)

(1)~(4)는 ‘-암/엄, -아/어, -암시/-엄시, -아시/어시’를 前接한 疑問法 내지 平叙法에 共히 ‘-서’ 語尾가 쓰인 發話들이다.

(1)에서 用言에 焦點이 주어지면 무엇이든시간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判定疑問으로 i)의 對答과 對應되며, i)은 平叙法인데도 ‘-서’가 쓰였다. ‘무시거’에 강세를 두어 發話하면 작은애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으로 ii)와 對應이 된다.

(2)에서 用言에 焦點을 두어 發話하면 어디든시간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묻는 判定疑問으로 i)과 對應이 되며 ‘어디’에 強세가 주어지면 간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說明疑問이 되어 청자는 ii)와 같이 對答하는데, i)ii)는 平叙法임에도 ‘-서’ 語尾가 실현되고 있다.

(3), (4)는 疑問詞가 없는 判定疑問인데, 거기에 쓰인 語尾 ‘-서’가 그 對答에 해당하는 平叙法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는 說明疑問과 判定疑問에 두루 쓰이며 疑問法과 語調를 달리하여 平叙法에도 쓰이는 疑問·平叙法 同型 語尾인데, 주로 壯年 내지 中年의 女子層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5. ‘-안/언’ 疑問語尾

- (1) ㄹ사 어디 갔다와? (아까 어디 갔다 왔어?)
 i) 아니, 집의 이서난. (아니, 집에 있었어.)
 ii) 윤집의 갔다와게. (윤집에 갔다 왔어.)
- (2) 어머니, ㄹ사 무시기엔 ㄹ안? (어머니, 아까 뭐라고 말했어?)
 i) 엇다, 아무겨엔도 안 ㄹ안. (아냐, 아무 말도 안 했어.)
 ii) 흔저 오랜 ㄹ엔. (빨리 오라고 했어.)

(1)에서 끝을 올려 上昇調가 되면 判定疑問으로 i)과 對應이 되며 ‘어디’에 強세를 두어 下降調로 發話하면 說明疑問이 되어 청자는 ii)와 같이 對答하는데, i)ii)의 平叙法에서도 ‘-안/언’ 語尾가 그대로 나타난다.

(2)도 用言에 強세를 두느냐, 疑問詞에 重點을 두어 發話하느냐에 따라 각각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이 되는데 그 對答에 해당하는 平叙法에서도 같은 어미가 그대로 나타난다.

- (3) 가의 이번에 멧등 ㄹ덴? (그애 이번에 멧 등 했다더냐?)
 ㄹ메, 안 ㄹ아취라. (글쎄, 말해 주지 않더라.)

(4) 가문 어느제 오켄? (가면 언제 오겠다더냐?)

가봐사 알켄. (가 봐야 알겠다더라.)

(5) 그디 강 뭐 험켄? (거기 가서 뭐 한다더냐?)

그냥 놀암덴. (그냥 놀고 있다더라.)

(6) 우리 성안티 빨리 집의 와드렌 돌아주켄? (우리 형한테 빨리 집에 와 달라고 말해 주겠니?)

알았저, 나가당 돌아뵙 가마. (알았어, 나가다가 말해두고 갈게.)

(3)~(6)은 청자가 들은 바라든지, 의향, 제삼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받으려는 間接疑問法의 형태로 그에 대한 응답에 해당하는 平叙法에서도 똑같은 語尾가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언’은 說明疑問, 判定疑問에 관계 없이 사용되는 複體로서 疑問·平叙法 同型 語尾이다.

IV. 흡서體 疑問法

1. ‘-ㅍ/과, -강/가, -까’ 疑問語尾

No	先行形態의 構成	疑問法語尾
1	禮言 -(이) -(우)	ㅍ/강/까
2	用言 -이 -(우)	
3	用言 -(우)	
4	用言 - 너 거 -우	
5	用言 - 너 거 -우	
6	用言 -ㄱ - (우)	
7	用言 -았시/었시 -우	
8	用言 -아시/어시 -우	
9	用言 -ㅂ데	강/가
10	用言 -았시-었시-ㅂ데	
11	用言 -아시-어시-ㅂ데	
12	用言 -ㅂ데	까

- (1) 그거 무시겨우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량 좋다. (모르는 게 좋다.)
- (2) 무시겨 경 열심히 험이과.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우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 (3) 체시과? (체십니까?)
예, 이디 잇수다. (예, 여기 있습니다.)
- (4) 마농 어느제 심글겨과? (마늘은 언제 심을 것입니까?)
비만 와나문 심글겨여. (비만 온 후면 심을 거야.)

흡서體 疑問法은 下位者인 화자가 上位者인 청자에게 묻는 것으로 여러 異形態로 나타난다.

(1)~(4)는 ‘-ㅍ/과’로 발화되는 경우이다. 반드시 尊待法 형태소 ‘-우’를 前接하며 ‘-우’가 실현되지 않을 때는 ‘-과’로 나타나는데, ‘-우과’를 줄여서 ‘-과’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우’가 필수적으로 실현될 경우는 ‘-까’가 異形態로 쓰이기도 한다.

- (5) 서귀포 강 무시거 사다주쿠강(가)? (서귀포 가서 무엇을 사다 주겠읍니까?)
 무시거 사다주느니? (무엇을 사다 줄까?)
- (6) 어디서 오람수강(가)? (어디서 오십니까?)
 밧되서 오람저. (밭에서 오고 있다.)
- (7) 우리 삼촌 못 봄테강(가)? (우리 삼촌 못 보셨읍니까?)
 요 알력집의서 장기 됴서라. (요 아랫집에서 장기 두고 있더라.)
- (8) 가의 집의서 무시거 험십테강(가)? (그 애 집에서 뭐 하고 있읍니까?)
 가의 무슨 일로산디 즈들암서라. (그애는 무슨 일로인지 걱정하고 있더라.)

(5)~(8)은 尊待 형태소 ‘-우’다음에,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형태소 ‘-크+-우’에 ‘-강/가’를 後接하여 尊書體 疑問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動作相의 형태인 -암시/엄시, -아시/어시’에 회상을 나타내는 형태소 ‘-데’가 결합되거나, 用言에 ‘-데’가 결합된 형태에는 반드시 ‘-강/가’가 後接됨을 보이고 있다.

- (9) 어머니, 이젠 지슬 나오지 안 험니까? (어머니, 이젠 감자 나오지 않읍니까?)
 무사 안 나오느니? (왜 안 나오니?)
- (10) 나 밧되 강 느물 허영 옴니까? (나 밧에 가서 나물 해 가지고 옴니까?)
 기여, 헤영 오라. (그래, 해 오너라.)

(9)~(10)의 발화는 用言의 語幹에 직접 ‘-비니까’를 後接하여 표준어와 같은 尊書體 疑問法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보아 ‘-파/과, -강/가, 까’ 등은 모두 尊書體 疑問法 語尾들인데, 이들 어미 앞에 前接되는 ‘-데’와 ‘-니’는 각각 ‘-강/가’나 ‘-까’ 語尾를 排他的으로 선택한다.

V. 結 論

疑問法은 화자가 缺如된 정보에 대하여 청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叙法이다. 이 疑問法은 尊卑法과 밀접히 결합하여 실현되므로 方言의 尊卑法 等分인 三分法-ᄃ라體, ᄃ여體, ᄃ서體에 따라 記述하였다.

以上에서 고찰된 내용을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는다.

1) ᄃ라體 疑問法 語尾에는 ‘-냐’系, ‘-다’系, ‘-가’系, ‘-니가’系, ‘-네’系, ‘-지’ 등이 있다.

1-1) ‘-냐’系 語尾는 主語의 인칭과 시제에 관계 없이 발화된다.

일반적으로 ‘-냐’ 語尾는 특정의 主語가 특정의 叙述語에 연결되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해답해 주기를 바라는 判定疑問, ‘-니’ 語尾는 疑問詞의 내용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說明疑問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疑問詞가 있는 문장에서도 ‘-냐’ 語尾가 쓰여 焦點을 用言에 두고 上昇調로 발화하느냐, 疑問詞에 焦點을 두어 下降調로 발화하느냐에 따라 ‘-냐’ 語尾만으로 判定疑問과 說明疑問의 기능을 두루 하게 된다. 이는 글썽 終結語의 일반적인 母音[a]('다, -라, -가')에의 統一化 경향으로 보았다.

‘-냐’ 語尾에 未完了存續相 ‘-암시/엄시’나 完了存續相 ‘-아시/어시’가 前接되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에 대한 내용을 묻는 疑問法이 된다.

‘-네’는 화자의 주관적인 단정이 개입되어 청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뜻이 내포되는 疑問法 語尾인데, ‘이’라는 添辭를 필수적으로 後接시키며 語調를 달리하여 平叙法 語尾로도 발화된다.

1-2) ‘-다’系 語尾는 主語가 청자일 때만 호응이 되며, 중세국어에서도 ‘-다’ 語尾로 說明疑問과 判定疑問의 기능을 했던 예를 볼 수 있다.

‘-디’ 語尾는 文中에 반드시 疑問詞를 배치하여 說明疑問으로 쓰인다. ‘-다’ 語尾는 文中에 疑問詞가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두루 쓰인다. 疑問詞가 쓰인 문장에서는 焦點이 用言에 주어지면 判定疑問, 焦點을 疑問詞에 두어 발화하면 說明疑問이 된다.

이와 같이 ‘-다’, ‘-디’로 구분되어 기능을 달리하여 쓰이지만, ‘다’ 語尾만으로도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게 됨은 體系의 동요로 인한 單一形態로의 統一化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의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1-3) ‘-가’系 疑問法은 主語의 인칭에 관계 없이 발화되며 주로 體言 叙述語에 나타난다. ‘-가’는 判定疑問, ‘-고’는 說明疑問에 쓰이는 형태인데, 이는 후기 중세 국어의 文獻語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疑問詞가 없는 문장에 ‘-고’ 語尾가 쓰이면 화자의 의아함을 나타내거나 발화의 내용에 대한 부정의 뜻을 내포한 특이한 疑問法이 된다. ‘-게’ 語尾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心的 태도가 들어 있는 疑問法을 구성한다.

‘-가’系에 속하는 ‘-카, -코’ 語尾에서 ‘-코’ 語尾는 說明疑問으로 쓰인다. ‘카’ 語尾는 語調만 달리하여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는데, 표준어의 ‘-ㄹ까’ 語尾와 대응이 된다.

1-4) ‘-ㄴ가’系 語尾는 體言敘述語나 用言敘述語에 두루 나타나나 主語가 제삼자일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발화된다. ‘-ㄴ가’는 判定疑問, ‘-ㄴ고’는 說明疑問으로 대립되는데, 위의 ‘-냐’系,, ‘-다’系, ‘-가’系와는 달리 非實在的 사실(=[-現場性]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懷疑 또는 疑懼를 표시하는 間接疑問法이 된다.

1-5) ‘-ㄴ레’ 語尾는 主語가 청자이며 敘述語가 動作動詞인 경우에만 발화된다. 그것은 ‘-ㄴ레’의 속성이 청자의 의지를 타진하는 것으로 體言이나 狀態動詞 같은 [+stative] 敘述語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6) ‘-지’ 疑問法에는 화자의 확신이나 화자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상대자에게 다짐하면서 화자가 肯定的 答을 기대하거나 상대자의 불합리한 행동을 시정해 줄 것을 바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疑問의 내용을 화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요구되어 이 疑問法은 疑問詞를 동반하지 않는 判定疑問에서만 나타난다.

2) ㅎ여體 疑問法 語尾로는 ‘-ㄴ로고, -라, -멘, -서, -안/언’ 등이 있는데 별로 격식을 요하지 않는 平待間의 발화에서 나타난다.

이들 語尾는 說明疑問과 判定疑問에 두루 나타난다. 疑問詞가 있는 문장에서 用言에 강세를 두어 上昇調로 발화하면 判定疑問이 되며, 疑問詞에 강세가 주어져 下降調로 발화하면 說明疑問이 된다.

또한 이들은 모두 語調만을 달리하여 疑問法과 平叙法에 두루 쓰이는 疑問·平叙法 同型 語尾이다.

3) ㅎ서體 疑問法 語尾에는 ‘-ㅍ/과, -강/가, -까’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음운 환경 내지 前接되는 형태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尊待法 형태소 ‘-우’가 발화상에 나타나거나 문장 속에 포함되었을 때는 ‘-ㅍ/과, -강/가, -까’가 조건 없이 교체되나, 回想의 형태소 ‘-데(-디)’에는 ‘-강/가’가 ‘-니’에는 ‘-까’ 語尾를 각각 排他的으로 선택하여 발화한다.

參 考 文 獻

- 姜根保(1971), “濟州島方言 語彙考(二)” 「國文學報」(濟州大)
- 姜信沆(1978), “安東方言의 敘述法과 疑問法”, 「언어학」3호, 한국언어학회
-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語學研究」15.
- (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10-1.
- (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塔出版社.
- 金榮敦(1965), 「濟州島民謠研究」, 一潮閣.
- 김영희(1975), “의문문의 이접적 특성”, 「문법연구」2.
- 김창식(1960), “대구방언고-의문형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4, 靑丘大.
- 김하수(1979), “‘-르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말」4집(연세대)
- 羅珍錫(1958), “의문형어미고”, 「한글」123.
- 徐禎穆(1979), “慶南方言의 疑問法에 대하여”, 「언어」4-2.
- 成洛秀(1975), “교육어의 ‘말입니다’, ‘요’와 제주도 방언의 ‘massim’에 대하여”, 「연세어문학」6, 연세대.
- 安秉禧(1959), “中期語의 否定語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20.
- (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建國大學校 學術誌 第六輯.
- 李男德(1967), “十五世紀國語의 直說法 終結語尾 變化에 대하여”, 梨大論叢 11.
- 李崇寧(1957),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3. 延世大學校出版部.
- (196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李承旭(1963), “疑問添辭考”, 「국어국문학」26.
- (1971), “18世紀 國語의 形態論的 特徵”,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 이익환(1980), “의문문의 종류의 응답의 논리”, 한국언어학회, 1980년 가을 연구회.
- 李仁模(1963), “中世國語의 叙法研究”,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 李賢熙(1982),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國語研究」52.
- 千時權(1975), “慶北方言의 疑問添辭에 대하여”, 「國語教育研究」7.
-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 研究”, 學術院論文集 15.
- 韓國精神文化研究院篇(1980), 「韓國口碑文學大系」9-1.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玄平孝(1973), “濟州島方言 活用語尾와 文獻語의 比較研究”, 1973년 국내교환교수 연구보고서
- (1974),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亞細亞文化社.

-
- 玄平孝, 金洪植, 姜根保(1974),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濟州大 論文集6, 大學校.
- 玄平孝,(1977),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 74.
-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 洪宗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碩士論文.
- 黃炳淳(1980), “의문문의 특수성에 대하여”, 「嶺南語文學」 7.
- Jespersen, O.(1925),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bstract

A Study of "Interogative Endings" in the Cheju dialect

Kim Mi-Kyŏng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ong-Sik

A Study of "Interogative Endings" in the Cheju dialect

As a kind of mood, the interogative requests certain informations to hearer with which part is expected to be filled by speaker's intention. Since the interogative ending follows a honorific prefinal morpheme, trichotomy is introduced to describe the mood according to such general honorific system as 'hara, hayδ, and hapsδ' mode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previous chapters.

1) The endings with which the dishonorific mode 'hara' concurs are such endings as '-nya, -ta, -ka, -nga, -re, -ji'.

1-1) The ending '-nya' has no constraint such as second person subject or special tense marker in its realization and it functions as yes-no question. The ending '-ni', however, is related to the so-called wh-question in which wh-form word appears to be filled in with the informations requested from hearer's side. When the action aspect morphemes such as '-am-si-' or '-a-si-', imperfect or perfect respectively, are followed by the ending '-na', then it asks an irregular habitual action in the past. As a subjective assertion of speaker to be requested an assent from hearer, the ending '-nye' is characterized for that purpose with the condition that the particle 'i' should follow up to the ending in all cas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7.

1-2) the ending '-ta' has a constraint of subject where all grammatical person except which relates hearer's side is ungrammatical. The ending '-ti' is accompanied with wh-word, while '-ta' keeps no such exclusion so that a focus is the key to distinguish such kinds of questions.

1-3) The ending '-ka' is assumed to be attached to a nominal (or its equivalent) word. It is described that the ending '-ka' means yes-no question and '-ko' means wh-question. This is concord with the phenomenon of the medieval Korean corpus. If the latter '-ko' is used for non wh-question, then it implies any suspicion of the sentence at issue or sometimes denial from speaker himself. If contrast, the ending '-ke' implies a modest request of an assent for the sentence at issue from hearer's side positively by speaker.

1-4) The ending '-nga' has no restriction on its preceding form but it takes exclusively a third person subject. In most cases, this ending represents speaker's suspicion or doubt about a far distant fact which is not in the present speaking situation, for this reason, becoming an indirect question. The subclass endings are '-nga, -ngo' which are split into yes-no and wh-form questions each other.

1-5) The ending '-re' constrains on its subject and predicate as well. Only active predicate with perlocutive hearer as a subject constitutes its wellformedness due to its volitative feature of ending '-re'.

1-6) The ending '-ji' shows very complicated pragmatic conditions among the endings discussed so far. This ending implies the following situations. Firstly, speaker asserts or judges affirmatively or clearly the fact of the sentence at issue. Secondly, he expects a positive answer from hearer's side or by his affirmation he connotes certain request of modification or correction to hearer's part intentionally. So it is presupposed that hearer, at the very least, knows or has a cognition o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 at issue already. Syntactically, this ending hardly permits wh-form word in this regard, if not, a shared information between speaker and hearer is never postulated.

2) In the plain honorific mode 'hayö', such endings are observed as '-lrogo, -la, -men, -sö, -an'. These endings take two kinds of role in question, i.e., yes-no and wh question, in which focus acc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viding between the two questions. Moreover, it deserves a special mention that the endings are the same forms of the declarative mood except their raising tone of the interrogative mood.

3) The high honorific mode is 'hapsö', in which '-kkwa, -kang, -kka' are found. After the honorific morpheme '-wu-' all these endings can be realized without any constraint. The ending '-kang' is solely permitted to follow after the retrospective morpheme '-te-' and '-kka' after the present progressive morpheme '-ni-' exclusively.